

국립공원 어린이 숲학교(7차시)

| | |
|------|---------|
| 활동장소 | 천동탐방안내소 |
| 소요시간 | 90분 |
| 참가대상 | 유아 6~7세 |
| 참가인원 | 30명/해설사 |

활동목표

- 다람쥐가 숲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본다.
- 자연놀이를 통해 동물과 식물의 공생관계를 알아보고 협동심을 배운다.

준비물

- 해설 교보재, 줄, 각 종 열매, 리빙박스, 자연놀이 활동 준비물 등

유의사항

- 정해진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의
- 자연놀이 도중 상대방을 밀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유의

| 단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도입 (생각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지난 시간에 내준 '지구 구하기' 미션 이야기 나누기 - 야외 현장 활동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 | 10분 |
| 전개 (놀이 및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람쥐 생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람쥐는 어떻게 생겼을까? - 다람쥐는 무엇을 먹고 살지? • 다람쥐의 주식은 도토리! 행방불명 된 도토리는 어디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람쥐의 건강증이 만든 울창하고 건강한 숲 • 다람쥐와 도토리의 공생관계로 자연의 순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을 나눠서 씨앗을 숨기고 찾기 - 열매를 들고 아슬아슬 외줄 건너기 - 열매 던지기 놀이 | 70분 |
| 마무리 (생각나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도 자연의 순환 속 일부,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본다. | 10분 |

시나리오

다람쥐 생태 알아보기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주인공을 사진으로 보여 줄 건데요. 다 같이 누구인지 맞춰볼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동그랗고 커다란 눈에 갈색의 털과 풍성한 꼬리를 가진 다람쥐예요. 등 뒤에는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4개의 작은 발에는 뽕족하고 튼튼한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잘 탄답니다.

그럼 다람쥐는 무엇을 먹고살까요? 꿈틀꿈틀 기어 다니는 애벌레도 먹고, 쾅쾅쾅쾅 뛰어다니는 곤충도 먹고, 새콤달콤한 열매도 먹고, 보들보들한 버섯도 먹고 살아요. 이 중에서도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데요. 뭘까요?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다람쥐 000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란 동요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도토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발견하면 한 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집어넣고 양 볼에 한가득 가져가요. 그리고선 날쌔게 이동하더니 멀지 않은 곳에다 얇게 땅을 파서 2~3알을 넣고 다시 흙을 덮어 놓아요. 다른 친구들에게 빼앗길까봐 낙엽까지 완벽하게 덮어 꼭꼭 숨겨 놓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똑같이 도토리를 땅에 묻어요. 이렇게 다람쥐는 하루에 200에서 300알의 도토리를 모으고 대부분 숨겨 놓는다고 해요.

다람쥐의 주식은 도토리! 행방불명 된 도토리는 어디에?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어디에 숨겼는지 전부 기억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예요. 다람쥐는 똑똑한 편이지만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심한 친구예요. 그래서 숨겨놓은 도토리 10개 중에 8~9개는 기억 못 하고 1-2개만 찾아 먹어요.

그럼 잃어버린 8~9개의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람쥐가 찾지 못한 도토리는요. 추운 겨울내 땅속에 잘 숨어 있다가 따듯한 봄이 되면 새하얀 뿌리를 내리고 멋진 어린 참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 참나무들이 숲에서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점점 크게 자라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만들게 됩니다.

다람쥐의 건망증이 건강한 숲을 만들고, 도토리를 주식으로 하는 동물인 먹보 너구리, 꿀꿀 멧돼지, 언제나 공손한 청서, 똑똑한 어치와 같은 많은 야생동물을 먹여 살리는 셈이죠. 다른 야생동물보다 작은 몸집을 가진 다람쥐는 숲에서 야생동물을 먹여 살리고 참나무를 보살펴주는 다정한 숲속 정원사 역할을 맡고 있어요.



▲다람쥐 생태 해설

다람쥐와 도토리 공생관계로 자연의 순환 인식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길 때 알게 판 혹은 도토리가 비와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고, 낙엽은 추운 겨울 내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불역할을 해줘요.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먹이를, 다람쥐는 참나무의 번식을 도와주는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도와주는 관계를 어려운 말로 공생관계라고 불러요.

도토리가 엄마 참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어린 참나무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10알 중에 1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자연적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연놀이 활동

인간도 자연의 순환 속 일부,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자연은 어느 것 하나 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공생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러진 나무들, 낙엽 한 장 마저도 누군가에겐 먹이가 되고 집이 되어서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은 없어요. 마치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처럼 자연의 모든 생물들은 연결되어 있고 그물 선 끝자락에 보면 우리 인간도 있어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의미인거죠?

자연, 야생동식물, 인간은 모두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이웃사촌인 야생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해 주면 좋겠어요. 다람쥐랑 참나무처럼요.